



박남희

# 레비나스의 존재론, 얼굴과 얼굴의 만남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 레비나스의 존재론, 얼굴과 얼굴의 만남

타자와의 관계는 철학의 영원한 화두이다. 타자를 알기 위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얼굴'. 레비나스는 그의 존재론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익명의 존재를 가정하는 얼굴과 얼굴의 만남으로 상정하였다. 레비나스의 철학 속으로 들어가보자.

## 학습 목표

- 얼굴과 얼굴의 만남
- 하이데거 철학에서 나타나는 세계-내-존재
- 개별적인 차이들로서의 존재자
- 김소월의 꽃과 김춘수의 꽃

## 강사 소개

### • 박남희

철학자. 독일 철학 전공. 해석학회 연구이사.

저서 『종교와 철학 사이』(2013), 『거리의 인문학』  
(2012) 외 다수

강의 보기



- 제목 : 레비나스의 존재론, 얼굴과 얼굴의 만남
- 강사 : 박남희 (철학자)
- 구성 : 2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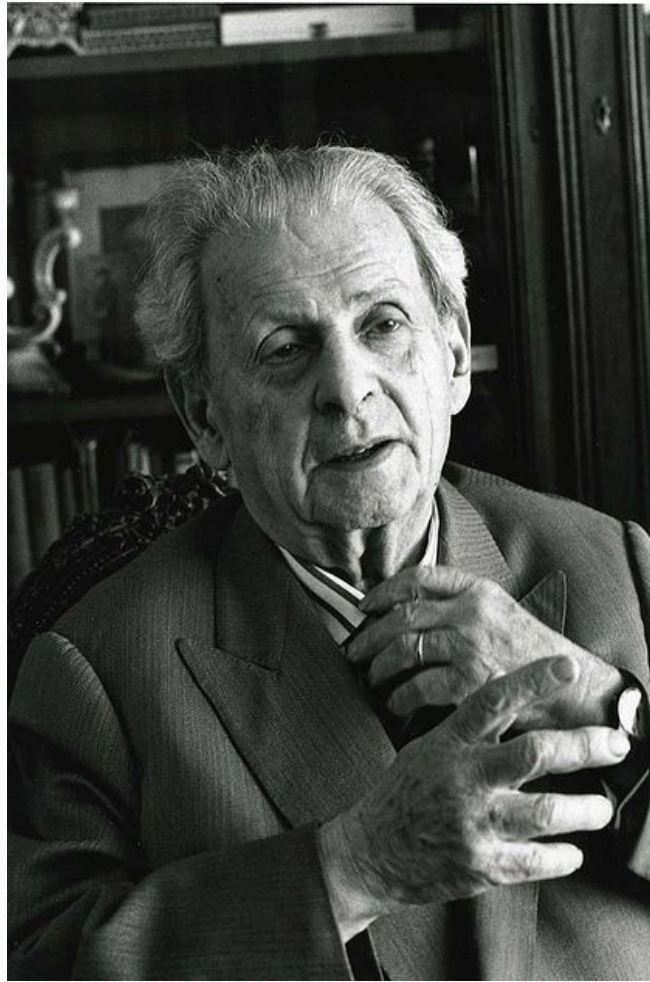
## 지식 노트



###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독일의 철학자. 현상학과 해석학의 계보를 잇는다. 존재론에 주목하여 세계-내-존재, 현존재(Dasein)를 탐구하였다

## 지식 노트



###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 1906~1995)

프랑스의 철학자. 홀로코스트의 체험을 바탕으로 타자에 주목하였다. 윤리학을 제일철학으로 하는 사유 세계를 펼쳤다. 주요 저서로 『시간과 타자』(1947), 『윤리와 무한』(1982) 등이 있다.

## 지식 노트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  
독일의 사회철학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일원으로 비판이론의 전통을 잇는다. 주요 철학적 작업으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있다.

## 강의 노트

### 존재론(Ontology)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학문.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주요한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 인식론(Epistemology)

인간의 앎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능한지를 묻는 학문. 존재에 대한 인식 근거를 탐구한다.”

### 형이상학(Metaphysics)

존재자를 포함한 세계 일반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존재의 실체적, 본질적 근원을 탐구한다.”

인간이라는 존재자는 언제나 익명적인 존재를 전제로 한다.

존재는 익명성이자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이므로 주체에 의해 포섭될 수도, 동일자로 환원될 수도 없다.

하이데거는 타자 관계를 존재와 존재의 고정된 상호관계로 간주하였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계를 ‘얼굴과 얼굴의 만남’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이란 개별 존재자를 의미한다.

존재자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현실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한다.

얼굴에는 구체적인 현실성과 더불어 인격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을 만날 때 그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상대방을 마주한다.

레비나스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얼굴과 얼굴의 만남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동등한 주체끼리의 상호 대화’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르므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각자의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 '차이'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타인과의 관계를 현존재(Dasein)의 존재론적 구조로 설정한다.’**

–『시간과 타자』(Le temps et l'autre, 1947)  
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0

**현존재(Dasein)**

거기(Da)'에 '있음(sein)'이라는 의미로,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실존적 사태에 기반한 존재를 지칭한다.

## 세계-내-존재(Das in-der-welt-sein)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 개인은 그를 둘러싼 타인들과의 관계,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존재와 시간』은 일상적 삶의 비개인성(비인격성)을 분석하거나 홀로 있게 된 현존재를 분석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1”

‘결국 하이데거에 있어서 타자는 서로 함께 있음(Miteinandersein)의 본질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 함께(mit)라는 전치사는 여기서 관계를 묘사한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1”

‘어떤 것 주변에 공통의 관계항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특히 진리를 한 가운데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face à face)’ 관계가 아니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1”

‘인간학 논문에서 볼 수 있는 빛나는 열정을 여기서는 기대할 수 없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1

→ 레비나스가 『시간과 타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존적인 삶의 현실에 대한 것이다.

레비나스의 글에서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레비나스의 철학 방식은 비유와 상징 속에서 독자가 스스로 해석하며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지식의 차원에 갇힌 명사형의 철학은 타자를 소멸하게 한다.

타자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타자로서의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일컫는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이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는 윤리학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오히려 통일성 안에 용해할 수 없는 다원론을 지지한다. 이것은 무모할지 모르나 어쨌든 파르메니데스와 결별하자는 시도이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3”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무수한 존재자들의 차이들뿐이다.

###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BC 540~미상)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엘레아 학파에 속하며 ‘오직 존재하는 것만이 있다’는 근본 명제로서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 전체주의

사회 유기체설에 근거하여 개인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상.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나타났다.

‘우리는 타자와 함께 존재한다. 모든 관계는 타동사적이다. 나는 대상을 만진다. 나는 타자를 본다. 하지만 나는 타자가 아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이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4”

‘그러므로 내 안에서의 존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나의 존재함은 어떤 지향성도 어떤 관계도 없는 절대적으로 자동사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4”

모든 개개인은 저마다 존재로서의 독립적인 개별성을 가진다.

‘존재(être)는 이런 의미에서 존재함(exister)에 의해 스스로 고립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단자(monade)이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4”

### 단자론(Monadologie)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 해당하는 이론이다. 단자(monad)는 ‘하나’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실체를 각각의 고유한 개별자라고 보는 입장이다.

각각의 존재자는 고유한 개별성을 가지는 단자이므로 함부로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문도 창문도 없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함’ 때문  
에지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이 내 안에 있  
기 때문이 아니다. 만일 어떤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내밀한 사적인 면이 있는 나의  
존재에 부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타자』(레비나스 지음,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p.34”

나의 ‘있음’ 자체는 타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김춘수, 〈꽃〉 중에서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김소월, 〈산유화〉 중에서

김소월 시에 나타난 ‘꽃’의 경우는 타인과의 관계 없이도 그 자체 있음으로서 자기 존재성을 드러낸다.

김춘수 시에 등장하는 ‘꽃’은 오직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비로소 자기 존재를 입증한다.

## 학습 요약

- 하이데거는 타자와의 관계를 고정된 존재자들의 관계로 보았다.
-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계를 익명적인 존재를 가정하는 얼굴과 얼굴의 관계로 보았다.
- 개개인들은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 차이 나는 존재자들이다.
- 김소월의 <산유화>는 홀로 있음으로서의 자기 존재성을 드러내는 반면, 김춘수의 <꽃>은 타인과의 함께 있음 속에서만 자기 존재성을 나타낸다.

## 인문 퀴즈

1. 홀로코스트의 체험을 바탕으로 '타자'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 프랑스의 유대인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의 저서가 아닌 것은?

- (1) 『시간과 타자』(Le Temps et l'Autre)
- (2) 『윤리와 무한』(Ethique et infini)
- (3) 『존재와 무』(L'Etre et le néant)
- (4)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편』(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 인문 퀴즈

2. 다음 중 독일의 현대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론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개념으로 보기 힘든 것은?

- (1) 현존재(Dasein): ‘거기(Da)’에 ‘있음(sein)’이라는 의미로, 인간의 존재가 세계의 관계 속에 기반함을 지칭한다.
- (2) 자기이입(Einfühlung): 미학의 ‘감정이입’ 개념을 도입하여, 자아로부터 의미 이양을 통한 타자의 구성을 설명한다.
- (3) 세계-내-존재(Das in-der-welt-sein):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현존재의 본질적 구조를 의미한다.
- (4) 서로 함께 있음(Miteinandersein): 타자와 공존하는 상호공동존재의 상황을 가리킨다.

## 인문 퀴즈

3. 다음의 지문은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가 저서 『시간과 타자』에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비판하며 쓴 글 일부이다. 레비나스의 존재론과 연관 지어 볼 때, 다음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떤 것 주변에 공통의 관계항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특히 진리를 한가운데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        ) 관계가 아니다.”

- (1) ‘무한 실체와 유한자의’
- (2) ‘무규정적 직접성의’
- (3) ‘서로 함께 있음의’
- (4)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정답

1. (3) 2.(2) 3.(4)

- 1. (3)은 사르트르의 저서이다.
- 2. (2)는 후설의 타자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 3. (1)은 스피노자, (2)는 헤겔, (3)은 하이데거의 사상이고 (4)가 레비나스의 이론이다.

## 이미지 출처

### 강의 보기

- Pixabay

### 지식 노트

- [http://en.wikipedia.org/wiki/File:Martin\\_Heidegger.jpg](http://en.wikipedia.org/wiki/File:Martin_Heidegger.jpg)
- [http://en.wikipedia.org/wiki/File:Emmanuel\\_Levinas.jpg](http://en.wikipedia.org/wiki/File:Emmanuel_Levinas.jpg)
- <http://en.wikipedia.org/wiki/File:JuergenHabermas.jpg>

레비나스의 존재론, 얼굴과 얼굴의 만남

강사: 박남희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 아트앤스터디